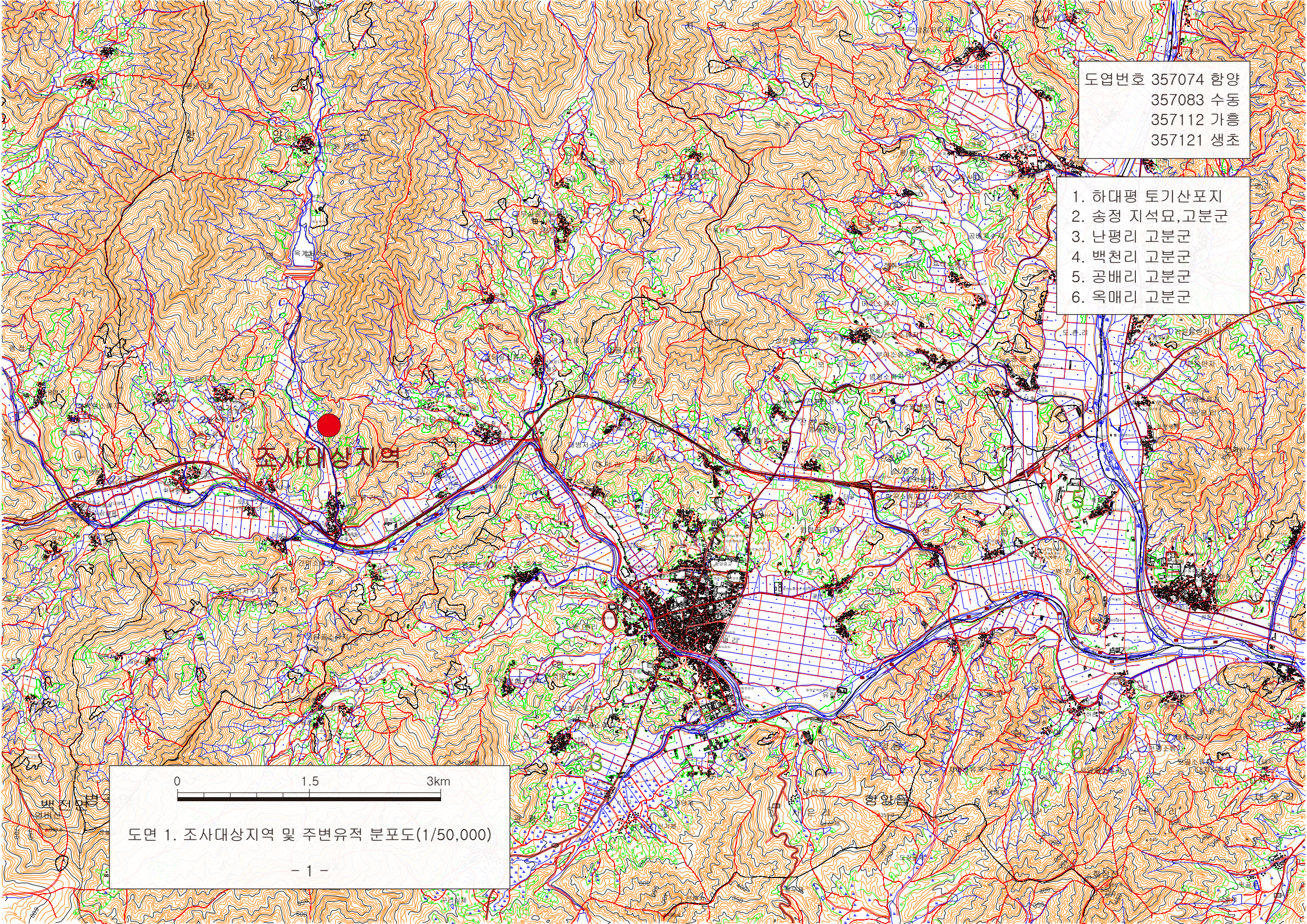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第214輯

88고속도로 확장구간내(7공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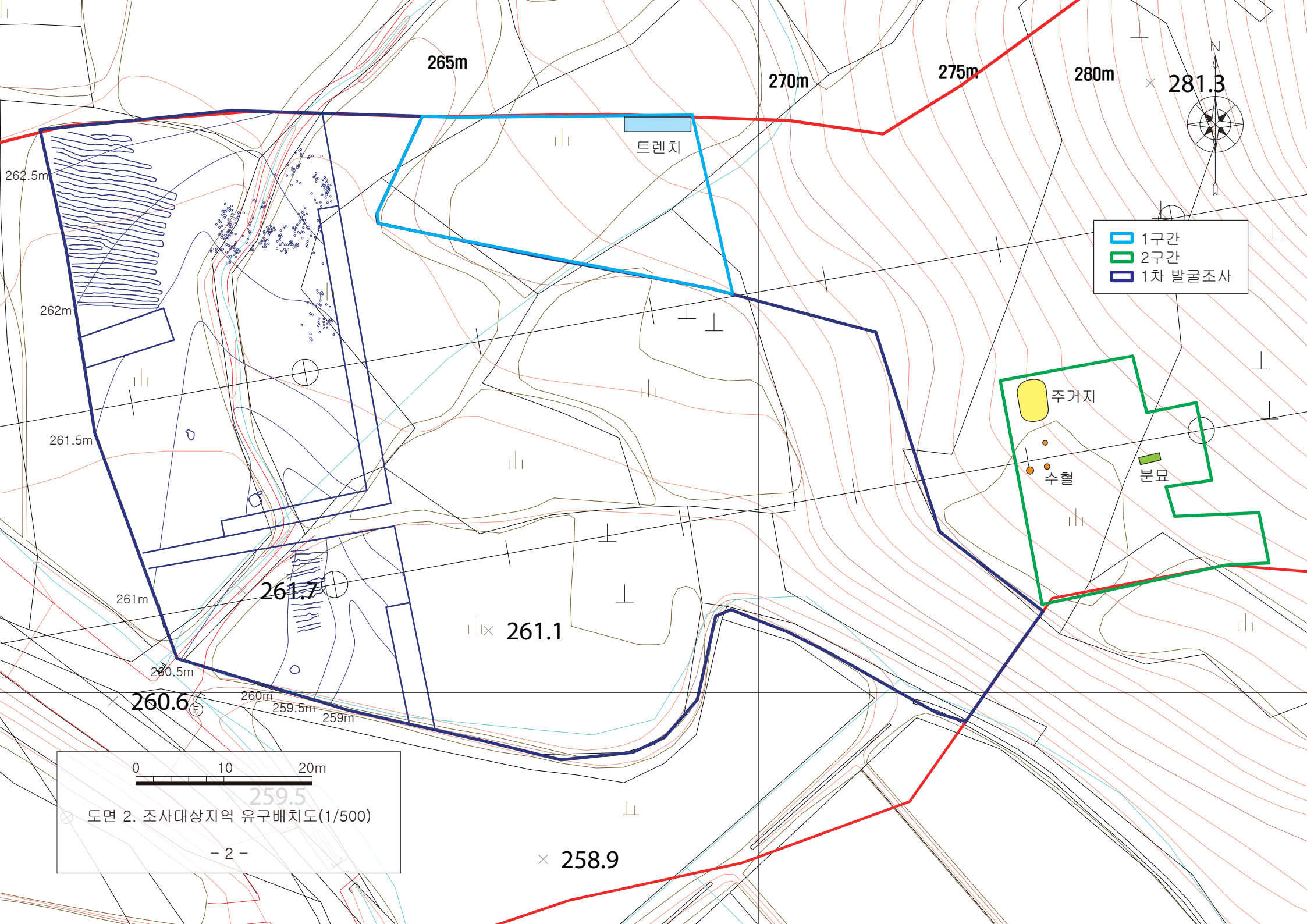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2010. 9.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1/500)

Ⅰ. 조사개요

1. 조사명

88고속도로 확장구간내(7공구) 유적 발굴조사

2.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150번지 일원(5,202㎡)

3. 조사기간

2010년 8월 26일 ~ 10월 14일(실조사일수 : 20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이동주(동아대학교 교수, 도문화재위원)
이은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 김정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조헌철(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미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한국도로공사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구간(7공구) 중 송평 토기산포지에 해당한다. 2004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수습되어 송평 토기산포지로 명명되었으며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된 전체 면적(16,971㎡) 중 미보상구간(3,819㎡)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2009년 삼강문화재연구원(舊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시굴조사, 2010년 1월~5월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밭층 및 식재흔, 소성유구 등이 검출되었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상기 송평 토기산포지 중 당시 미보상되었던 구간(3,819㎡)으로 2010년 6월 7일부터 동년 6월 14일까지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1피트와 2피트를 중심으로 하는 곡간 충적대지에서는 조선시대 도기·자기편 등 유물이 포함된 층이 확인되었으며, 구릉부인 12·13피트와 15·16피트, 19·20피트 등에서 조선시대 분묘, 수혈주거지, 소토흔 등이 검출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분묘는 봉토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앞서 매장문화재재의 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수립 및 공사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0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Ⅲ. 조사대상지역 주변유적 및 자연환경

1. 주변유적[1)]

1) 하대평 토기산포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하대평마을 입구 동쪽에는 직경 30m 정도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정상부에는 망두석을 갖춘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인근 지역에서 삼국시대의 토기 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삼국시대의 주거지와 같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적은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었던 새

1) 慶南文化財硏究院,『88올림픽 高速道路(咸陽-居昌間) 擴張事業 豫定區間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2004.
慶南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咸陽郡』, 2006.

로운 유적으로 향후 이 일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송정 지석묘와 고분군

송평마을 송호서원의 뒤편 언덕에는 남바우로 알려진 들이 있고, 들 옆에 멍덕바우가 있으며, 북쪽에는 뒷들이라 하고 상여처럼 생긴 생이바우가 있다. 이 바위들은 모두 청동기시대의 지석묘로 판단되는 것이며, 마을 동쪽에는 왕무덤골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고려장터로 전해지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3) 난평리 고분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산 83-1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높이 0.4m, 둘레 18m의 도굴된 고분 2기가 남아 있고 주위에 토기파편이 흩어져 있다. 속명으로 이곳을 방아골 고려장터로 부르고 있다. 현재의 노출상태로 보아 석실묘로 판단된다.

4) 백천리 고분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산 10번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백천리 척지마을의 낮은 구릉에 분포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수혈식 장방형 석실 및 석곽묘로 이루어져 있다. 유적의 동쪽에는 남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1980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고분 5기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수혈식 석곽묘 21기를 발굴하였다.[2)]

고분의 장축은 대개 남북향이고 두향은 북향이다. 고분의 규모는 1~5호분은 너비 14m 내외, 높이 2m 정도로 원형봉분이 남아 있으며 석곽은 수혈식 장방형이다. 유구의 규모는 주곽이 길이 5.2~7.35m, 너비 1~1.75m 내외이며, 부곽은 주곽보다 작은 길이 3m, 너비 0.45m, 높이 1m 내외이다.

작은 수혈식 석곽은 길이 3~3.5m, 너비 0.7m 내외이며 높이는 파괴가 심하여 알 수 없다. 석곽의 측면은 모두 냇돌로 쌓았고 장방형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개석으로 삼았다.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토기류이다. 토기는 주로 경질이고 연질 토기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기종은 유개식 원저장경호,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유개호, 고배, 발형토기, 낮은 원형기대 등이다. 고분 축조 연대는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된다.

---

2)釜山大學校博物館,『咸陽 白川里 1號墳』, 1986.

5) 공배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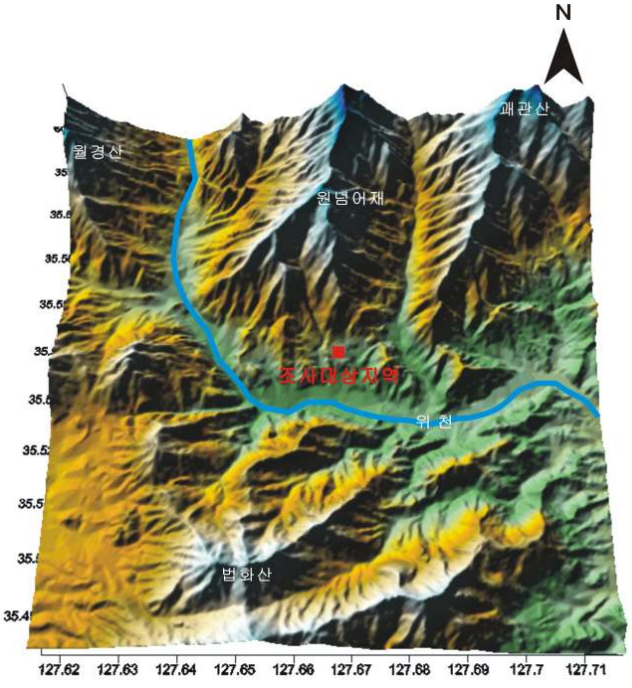
지곡면 공배리 소무산에서 동남방향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함양JCT와 인접하여 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1997년에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혈식 석곽묘 15기와 횡구식 석실묘 1기 등 총 16기의 고분을 확인하였으나, 도굴 및 삭평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개석이 잔존하는 유구는 모두 5기이며, 유구의 형태로 보아 나머지 유구에도 개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유구에서는 관정이 출토되어 석곽내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석곽은 2기를 제외하고는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개배 등 토기류와 토제방추차, 소수의 철기류가 있다. 석곽의 축조방법이나 유물의 조합상 등은 유적에서 약 1km 이격된 백천리 고분군과 유사하고,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초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옥매리 고분군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옥동마을 뒤편의 독립구릉에 해당하고, 앞쪽으로 옥동 유물산포지가 있다. 구릉은 해발 190m 정도의 야트막한 구릉이고 구릉 전체에 걸쳐 수혈식 석곽이 분포한다. 도굴로 인해 노출된 수혈식 석곽의 규모는 약 170×40㎝, 210×40×40㎝ 정도이다. 석곽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도굴로 인해 노출되어 있는 벽석을 통해 볼 때,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릉 정상부에는 대형 봉분이 위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도굴이 심하며, 10년 전까지 도굴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2. 자연환경

경상남도 함양군은 한반도 서남 중앙부에 위치하며 서남방향으로 뻗어있는 지리산 산맥의 동북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산악지대와 소규모의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산령과 충적대지 형성은 구성암석의 지질구조에 의해 형성되었다.



도면 4.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함양군 병곡면 일대는 해발 150~300m의 저구릉이 발달하고 있으며 흑운모화강암의 분포지역으로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서북부와 동남부에는 비교적 경질의 화성암류로서 험준한 고산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서쪽의 백운산(1,279m)에서 발원한 위천은 합양읍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남계천과 만나 경호강으로 합류된다.

조사대상지역은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일대로 괘관산(1253m)의 남쪽능선에 해당한다. 송평리 유물산포지는 괘관산의 남쪽능선의 서쪽 사면부이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각력들이 퇴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각력들이 중력에 의해 붕적되어 이동하다가 분쇄된 것이다. 따라서 원마도가 매우 불량한 크고 작은 각력들과 점토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산사태에 의해 이루어진 붕적층으로 판단된다.

Ⅳ.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 전경(남-북)

조사대상지역은 곡간 충적대지와 구릉부의 두 개 구간으로 대별되며 조사편의상 곡간 충적대지를 1구간, 구릉부를 2구간으로 명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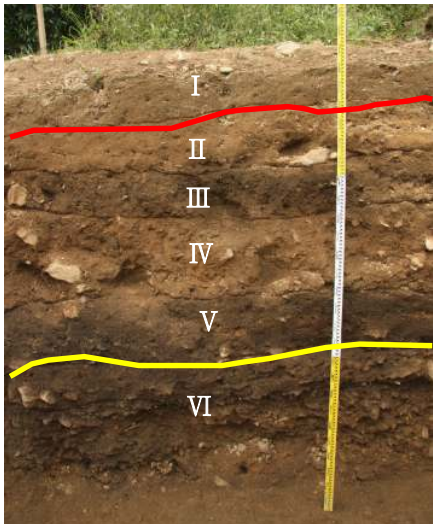
시굴조사 당시의 트렌치 및 피트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한 후 문화층이 잔존하는 범위까지 전면제토를 실시하였다. 검출된 유구는 고고학적 방법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구간에서 유구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구간에서 조선시대 분묘 1기, 수혈주거지 1동, 수혈 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내용

1) 1구간

1구간은 곡간 충적대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경사도는 완만한 편으로 시굴조사 당시,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피트 상면에서 유물이 다수 검출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도판 2. 1구간 기준토층 세부

1구간의 전체적인 퇴적양상 파악을 위해 트렌치를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트렌치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역의 층위는 크게 3개 층위로 구분된다. 최상부의 첫 번째 층위(Ⅰ층)는 명암갈색 부식토층으로 근·현대 경작층이다. 두 번째 층위(Ⅱ~Ⅴ층)는 황갈색 사질점토(Ⅱ) - 암갈색 사질점토(Ⅲ) - 황갈색 사질점토(Ⅳ) - 암갈색 사질점토(Ⅴ)가 순차적으로 반복 퇴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갈색 사질점토층 내부에는 10㎝ 이상의 할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층은 구릉 정상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구릉 정상부에서 흘러내려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층위(Ⅵ층)는 3~10㎝정도 할석이 다량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붕적층으로 추정된다.

전면제토 결과, 유구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형 석재 및 할석들이 평면상에서 노출되었다. 석재들은 무질서하게 산재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가공흔이 관찰되지 않아 자연석으로 판단된다. 곡간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1구간의 입지조건상 지속적으로 붕적과 퇴적 작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900년대 초반에 큰 규모의 산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3. 1구간 조사후 전경(남-북)

2) 2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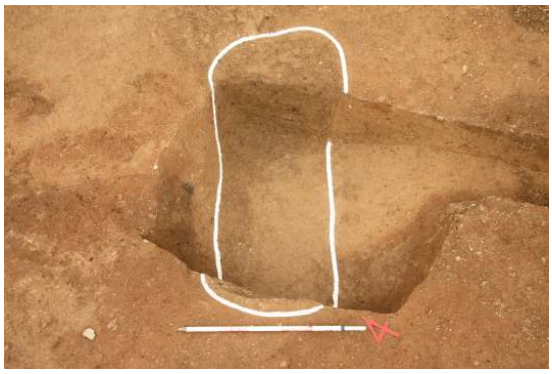
구릉부의 완만한 사면부에 해당하며 조사된 유구는 조선시대 분묘 1기, 수혈주거지 1동, 수혈 3기가 조사되었다.



도판 4. 2구간 전경(서-동)

분묘는 2구간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다. 봉토 일부가 잔존하며 시굴조사 당시 묘광의 일부가 트렌치에 의해 유실된 상태이다. 봉분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용하였으며 2개의 층으로 세분된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 750㎝, 잔존 높이 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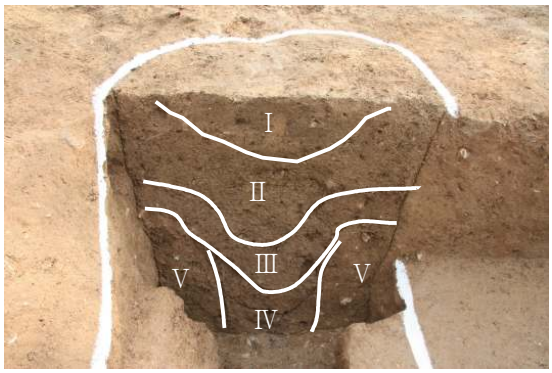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230㎝, 너비 100㎝, 잔존 깊이 95㎝이다. 내부토층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U'자상의 함몰양상을 보인다. Ⅰ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서 내부로 함몰된 봉분토로 이며, Ⅱ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관의 내부충진토, Ⅲ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관의 밀봉토, Ⅳ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관 내부 함몰토로 추정된다. Ⅴ층은 점성이 강한 명황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한 보강토로서 너비는 50cm 정도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판 5. 분묘 조사전 (서-동)



도판 6. 봉분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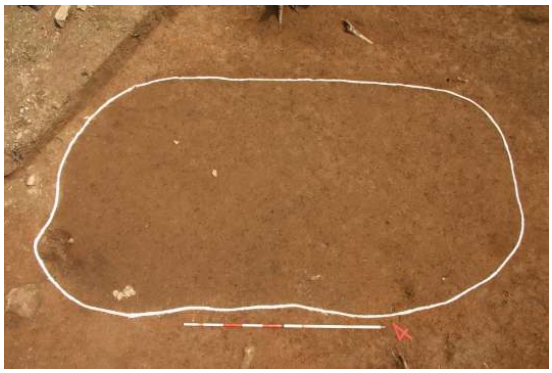


도판 7. 분묘 내부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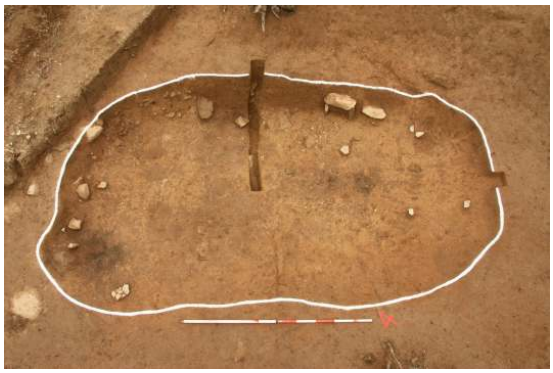


도판 8. 분묘 내부 노출 후(서-동)

수혈주거지는 2구간의 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520㎝, 너비 290㎝, 잔존 깊이 60㎝이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 1기와 주혈 2기가 조사되었다. 화덕은 동장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5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벽면에 2매의 석재를 양쪽으로 세워 붓돌을 놓고, 그 위에 이맛돌을 얹어 놓은 구조이다. 주혈은 모두 4기가 조사되었으며 동장벽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혈의 직경 26~30㎝, 잔존 깊이 3~8㎝로 내부에는 목탄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지붕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도기편과 분청사기편, 도자가 주거지의 상면에서 출토되고 있다.



도판 9. 수혈 주거지 조사전 (남서-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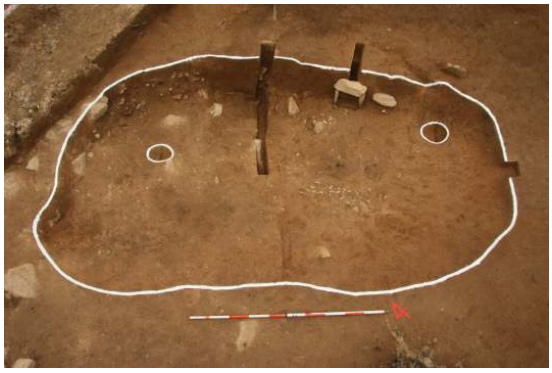
도판 10. 수혈 주거지 노출 후 (남서-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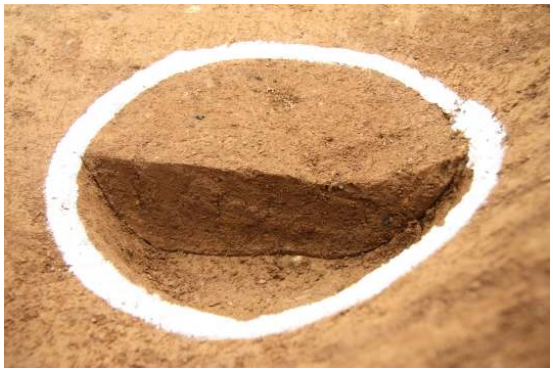
도판 11. 수혈 주거지 부뚜막 토층



도판 12. 도자 출토상태



도판 13 주거지 상면 조사 후 (남서-북동)



도판 14. 주혈 토층

수혈은 모두 3기가 조사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격 40~70㎝정도이다. 잔존 깊이는 10㎝내외로 내부에는 다량의 소토가 포함되고 있다.



도판 15. 수혈 조사전 전경 (남-북)



도판 16. 1호 수혈 토층

출토유물은 조선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으로 도기편, 분청사기편, 도자 1점이 있다. 그 중 시기 판단이 가능한 분청사기를 검토해본 결과 시기는 5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편년된다.



도판 17. 주거지 출토 자기 일괄

Ⅴ.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구간(7공구) 중 송평토기산포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역은 곡간 충적대지와 구릉부의 두 개 구간으로 대별되며 조사편의상 곡간 충적대지를 1구간, 구릉부를 2구간으로 명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1구간은 유구나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평면 노출결과, 대형 석재 및 활석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구간이 곡간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붕적과 퇴적 작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층이 유존하기에는 어려운 지형으로 판단된다.

3. 2구간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1기와 수혈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의 출토유물로 볼 때, 시기는 대략 15세기 전~중반으로 추정된다. 분묘에선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와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

4. 현재 조사 중인 유구에 대해서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접한 곳에 조선시대 분묘가 유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변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諮問委員會 第214輯

88고속도로 확장구간내(7공구) 유적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인 쇄 일 / 2010년 9월 13일
발 행 일 / 2010년 9월 14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30-8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